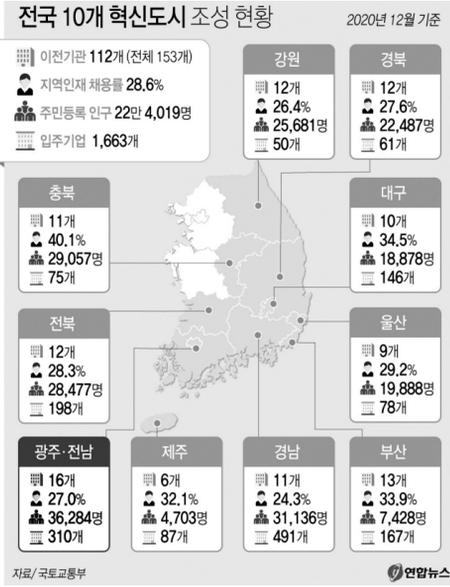


나주 혁신도시 인구 4만명 눈앞...1년 새 3800명 증가



인구 3만6284명 전년비 11.7%↑...혁신도시 중 인구 최다
인구 증가 2019년 1659명·5.4%서 증가폭 2.3배 키워
지역인재 채용률 27%로 목표 달성...전체 평균엔 밀돌아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3800명이 새로 등지를 틀며 주민등록 인구가 3만6284명으로 불어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인원 1280명(전체 신규 채용 2496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46명을 지역에서 채용 목표 초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혁신도시의 성과와 지역 성장거점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3만6284명으로, 1년 전(3만2478명)보다 11.7%(3806명) 증가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는 22만4019명으로, 전년(20만4716명)보다 9.4%(1만9303명) 늘어났다.

10개 도시 가운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1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인구 증가율은 경남(25.3%)과 충북(1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나주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은 지난 2년 동안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지만 지난해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2018년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9.0%(2552명) 증가한 3만819명을 기록했고, 2019년 5.4%, 2020년 11.7%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659명 증가에 비해 이듬해에는 증가 폭을 2.3배 키웠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0.5%(2018년)→6.3%(2019년)→9.4%(2020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130개 공공

기관은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6%를 기록해 목표치(24%)를 초과 달성했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도 채용대상 1280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46명을 지역에서 뽑았다.
하지만 전체 평균 지역 채용률(28.6%)에는 못 미쳤고, 경남(24.3%)과 강원(26.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한 12개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세종(46.2%), 충북(40.1%), 대구(34.5%), 충남(34.2%), 부산(33.9%), 제주(32.1%), 울산(29.2%), 전북(28.3%), 경북(27.6%), 나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개 혁신도시에는 7893호의 공동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등 총 8만4328호가 들어섰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전체의 18.5%에 달하는 1만5634호가 조성됐다.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총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기업 입주 공간과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을 함께 짓는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비즈파크에는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 협업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0대 협업사업에는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서 착공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유가 하락에 영업이익 4조 천억원...3년 만에 '흑자 전환'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ESG 경영 확대 등 계획 발표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올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올해 계획을 밝혔다.
한국전력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유가 덕에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8조6000억원,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000억원과 1조3000억원 적자를 낸데 이어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연료 가격 하락이 하락하면서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전년의 3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5000억원으로 6조원 가량 감소한 게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사 연료비는 유가 및 유연탄가 등 연료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력구입비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매량이 2.0% 늘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유가 하락 등으로 2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전 측은 "영업실적은 원전이나 석탄 이용률보다는 유가 등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기간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전력판매량은 2.2%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은 2000억원 줄었다.
한전 측은 올해 전력 수요와 구매량 전망에 대해

"국내의 경기 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는 전년보다 2% 성장하겠고, 구매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영방향과 관련해선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경영효율화를 통해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익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 및 전력그룹사 판매량 1kWh당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2024년까지 연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송배전 투자를 계속 늘리기로 했는데, 지난해 송배전 투자비는 6조2000억원이며 올해와 내년에 계획된 투자 규모는 각각 6조4000억원, 7조원이다.
한전 측은 "신재생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저탄소·친환경 중심 해외사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지역 돕기 실천
실버스토리 요양원 등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봉사의 하나로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한혈증 90매를 기부하기로 했다.

한전KDN 나주 본사 직원들은 최근 나주 농가로부터 구매한 50만원 상당 배와 후원금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한전KDN 지역 돕기 실천
한전KDN 나주 본사 직원들은 최근 나주 농가로부터 구매한 50만원 상당 배와 후원금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한전KDN 지역 돕기 실천
한전KDN 나주 본사 직원들은 최근 나주 농가로부터 구매한 50만원 상당 배와 후원금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한전KDN 지역 돕기 실천

최영호 한전 상임 감사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전력은 최근 최영호 한전 상임 감사위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지키자는 문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 된다.
최 상임감사는 박용재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그는 박해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최항동 한국사부발전 상임감사, 정창식 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최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and 안전한 사회 구현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한전 제공>

사학연금, 지난해 기금운용수익 사상 첫 2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수익이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학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은 11.49%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률 11%대를 달성했다.
기금규모는 2019년 말 20조7460억원에서 지난해 23조2376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해 동안 2조4916억원의 운용수익이 난 것이다. 이는 장단 이래 최고 실적이라고 사학연금 측은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지난해 1분

기주가 폭락 속에서 한때 자금운용 손실이 발생했지만, 중장기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보유현금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초과 수익률이 난 요인으로는 저성장 저금리 안전자산인 채권비중 축소와 주식, 대체 등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34.43%를, 해외주식 13.89% 등 최종 주식부문에서 24.10%의 수익률을 거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